

# 雲門

불기 2560년

겨울호

통권 제139호

雲門寺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배워왔던 경문들을 마음에 새기며 안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됩시다. / 대교과 효주
- ☘ 얼마 남지 않은 참으로 고마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포효하는 호거산에서 언제나 위풍당당한 운문사 대중스님들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대교과 준호
- ☘ 우리 모두 자기자리에서 마지막 회향을 잘 합시다. / 대교과 지송
- ☘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않고 한 순간도 방일치 않기를 발원합니다. / 사교과 진과
- ☘ 묵향 가득한 경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지기를 발원해봅니다. / 사교과 무이
- ☘ 손도 발도 푹푹 열게 만드는 겨울입니다. 점점 떨어져 가는 체력은 신심으로 채우고 스치는 손끝, 말끝, 눈끝에 자비를 담아 이 겨울도 행복합시다. / 사집과 자운
- ☘ 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품 안에서 수행해 나가는 포근한 겨울 되기를 기도합니다. / 사집과 도행
- ☘ 겨울 김장으로 치문 마무리 잘 하고, 내년 잘 익은 사집으로 / 사미니과 동암
- ☘ 잘 익은 홍시 참 달다. 치문 1년, 무얼 내놓을 수 있을까? / 사미니과 무어
- ☘ 운문사 500년 소나무, 그 한 가지 끝이 되었습니다. / 사미니과 성경



# 雲門

##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보살행의 실천 평성
06	교수논단	義相 『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㉔ 영덕
11	想	지금, 여기 유연
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작은 것은 작은 것인가? 은광
14	학인논단	응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㉔ 원행
19	풍경소리	我 민재
20	자유기고 1	〈구름 속의 큰 별, 명성〉을 읽고 지우
22	기획연재	대웅전 다시보기2 동호
26	선방에서 온 편지	심검壽劍 지혜의 샘을 찾는다 편집부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내가 행복해지는 길 탄현
30	수행의 두레박 둘	잃어버린 신심을 찾아서 도원하
32	수행의 두레박 셋	發願文 자운
34	깨달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편집부
36	자유기고 2	무소유에 서린 뜻은 변락주
38	선지식탐방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을 찾아서 무이
42	차례법문	회향, 진심으로 돌이키기 혁인
44	운문, 운문인	함께 가는 겨울 冬行 편집부
46	이 한 권의 책	설정 스님의 인생법문 어떻게 살 것인가 혁녕
48	운문논평	무상하기에 수행한다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온 우주에 편집부



## 보살행의 실천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장



2016 오백나한 기도 회향법문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학사일정과 대·내외적인 일련의 행사들 그리고 올해에 인연이 있어 해야만 했던 일들을 하느라 바빠만 걸어온 한 해는 아니었는지? 지문해 봅니다.

얼마 전에 소중한 지인 한 분을 잃었습니다. 항상 그 보살님을 생각하면 흐뭇하고 감사하고 참 아름다운 분이라 여겼던 분인데...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서울 갈 일이 있으면, 보살님께 전화해서 여의도63빌딩에 있는 아이맥스에서 디큐를 함께 구경하곤 했습니다. 큰 화면으로 우주의 별이랑던가, 해양생태계 등을 보노라면 마치 우주와 하나 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지요. 보살님도 내 전화를 받고 “스님께서 초대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언제 이런 것을 보겠습니까?” 하면서 나의 영똥한 초대에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응해 주었습니다. 불교계 전반에 걸쳐서 보살님의 선행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불자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다 가신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남아계신 거사님에게 “보현보살님의 10대원을 실천하며 사세요”라는 숙제를 남기고 가셨다 하니 분명 보살님의 화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강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접하고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대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자체 이십니다. 지혜는 수많은 논사들이 말했듯이 무상과 무아를 터득할 때 얻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시시비비가 없어지고 허공처럼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새가 날아간 자취를 그려내라 했는데 나는 빈 도화지를 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공에 새가 날아간들 자취가 남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향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아무리 허공을 칭찬한들 허공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고요히 여여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 생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보살님은 일생 동안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지혜를 터득하고 바로 행을 실천하셨던 것이지요. 행이 따르지 않는 지혜는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승복이 스님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분심을 내어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다짐해야 합니다. 아직 지혜를 갖추진 못했어도 적어도 행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지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분심을 뱉시다!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중생들을 봅시다. 한 번 더 미소짓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내가 먼저 합시다.

운문도랑에 있는 대중 여러분들과 운문도랑을 거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간 모든 도반들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나 역시 “보현보살님의 10대원을 실천하며 사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 義相 『華嚴一乘法界圖』

## 題名 해설 2

- 『法界圖記叢隨錄』을 참고하여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華嚴一乘法界圖』와 『法界圖記叢隨錄』
  - 1. 『一乘法界圖』의 著者 問題
  - 2. 『法界圖記叢隨錄』의 가치
-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 IV. 맺는 말

###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 題名 해설

과 목	문답과 記文의 예시
<p>3) 1印, 54角, 210字의 법계도</p>	<p>〈표2〉 一乘法界圖構成</p> <pre> 一乘法界圖 ├── 自叙(法界圖 著述目的·讀詩法) ├── 合詩一印(法界圖印·繫詩) ├── 釋文 │   ├── 總釋印意 │   └── 別解印相 │       ├── 說印文相 │       ├── 明字相 │       └── 釋文意(七言三十句解釋) └── 跋文                     </pre> <p>3)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에서는 먼저 법계도가 1印, 54角, 210字임을 밝히고 있다. 1印이란 도장모양으로 쓰여진 하나의 시를 가리키고, 54角이란 이 시를 54회에 걸쳐 직각으로 각도를 꺾으면서 돌아가며 읽어야 함을 말한다. 210자란 완성된 시의 총 글자수이다. 30행의 7언시를 한 줄에 14자씩 15줄로 벌려놓은 장방형의 글자모임</p>

과 그것을 읽는 방법을 표시한 붉은 줄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내용의 요지는 모든 것이 그 근본성품에 있어서 부처이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그 무엇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않게 되고 분별이 없어진 경지가 곧 부처의 경지임을 밝히고 있다.

2. 本文 總論  
 1) 圖印의 총체적 해석  
 2) 三種世間을 상징  
 <표3> 삼중세간도

- 1) 圖印의 총체적 해석  
 問; 무슨 까닭으로 이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였는가?  
 答; 『화엄경』 전체의 總定이 해인삼매이고, 海印三昧의 禪定力에 의해서 顯現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삼중세간을 포섭하여 교화를 입히는 것도 선정으로 인한 것이니 결과적으로 法界圖印이 『화엄경』 교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2) 海印定 속에서 三種世間을 상징한 圖印  
 첫째는 주변 환경 국토인 객관적 器世間  
 둘째는 器世間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관적 衆生世間  
 셋째는 절대정신의 실현자인 불보살의 智正覺世間

<표3> 三種世間圖

습시一印	삼중세간	법 성 계			
		삼 보	위 치	법성계의 구	과문
흰종이	器世間	법	중앙	① 法性圓融無二相	(自利行) 現示證分
검은 글자	衆生世間	중	법' 上	② 衆生隨機得利益	(利他行) 明修行方便
붉은줄	智正覺世間	불	법' 下	③ 善來不動名爲佛	(修行) 辨得利益

3. 各論으로 圖印 풀이  
 1) 印文의 모양  
 • 一音敎  
 • 三乘敎  
 • 圓敎  
 • 一乘

- 1) 印文의 모양  
 ▲ 問; 印文이 한 길[一道路]로 되어 있는 까닭은?  
 答; 여래의 교리가 오직 하나[一音]임을 표시. 오직 부처님 한 분의 훌륭한 교화 방법론임을 나타낸다.  
 ▲ 問; 돌고 도는 굴곡이 많은 이유는?  
 答; 중생의 근기와 의욕이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 교리를 중생들의 근기와 수준에 맞게 삼승교의 방편으로 가르쳐야 함을 나타낸다.



	<p>▲ 問; 왜 印文에 처음과 끝이 없이 마주 이어지는가?      答; 중생교화의 선교방편이 어떤 한 방법에 치우침이 없이 원만함을 표시. 공간적으로 법계에 칭합하며 시간적으로는 十世에 상응하므로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포용하는 圓敎에 해당함을 상징.</p> <p>▲ 問; 四面과 四角이 있는 까닭은?      答; 四攝法과 四無量心 상징. 이것의 의의는 三乘을 의지한 一乘임을 나타낸 것이다.</p> <p>「法融記」에 의하면 圖는 像이라고 한다. 즉 이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 모양을 그려 보여주듯이, 修行者가 자신의 身心이 法界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계의 像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다. 圖印에 굴곡이 있고 사면과 사각이 있으며, 문자에도 굴곡이 많고 처음과 끝이 있는 등 차별적인 것은, 중생의 근기와 욕망이 같지 않으므로 삼승교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인에 시작과 끝이 없으며, 文字의 始終을 한가운데 둔 것은 일승원교에 해당한다. 印이 원만한 것은 일승이니 卍이고, 54각은 삼승이므로 卍이다. 諸角으로 말미암아 印이 원만함을 이루고, 인이 원만함을 말미암아 諸角을 이룬다. 그러므로 일승과 삼승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삼승교에 의해 일승을 나타내며, 일승원교에 의해 삼승교를 회통하여 일승과 삼승이 主伴相成하는 것이다. 따라서 圖印은 선교방편인 여래의 一音을 一道로 이어서 표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相이 갖는 의미를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六相을 알아야 한다. 아래의 字相에 문자의 始終이 있고, 法과 佛의 두 글자를 한가운데 둔 까닭을 밝히기 위해서는 六相說을 가지고 설명해야 그 뜻이 명확해진다.</p>
<p>• 「古記」云 同敎와 別敎 九種</p>	<p>「古記」에서 말하는 同敎와 別敎를 보는 아홉가지 견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黃牛의 수레는 同敎이니 羊車, 鹿車와 함께하기 때문이며, 大白牛車는 별교이니 삼승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li> <li>2. 대백우의 수레는 동교이고 왕의 상투 가운데 있는 구슬은 별교이다.</li> <li>3. 法華는 동교이고 華嚴은 별교이다.</li> <li>4. 二會인 제7 「여래명호품」에서 제12 「현수보살품」에 이르는 부분과 제35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은 동교이고, 제36 「보현행품」이후는 별교이다.</li> <li>5. 보현이 언어로 나타낸 것은 문자에 떨어지기 때문에 동교이고 보현이 안으로 증득한 것은 문자를 벗어난 것으로, 말이 끊어진 자리이므로 별교이다.</li> <li>6. 보현의 自內證은 因分이므로 동교이고, 佛의 밖을 향한 교화는 果分이므로 별교이다.</li> </ol>

	<p>7. 부처님께서 밖으로 중생의 機緣을 향하는 것은 동교이고, 안으로 향함은 인연과 근기(因機)를 떠나서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별교이다.</p> <p>8. 부처님께서 안팎으로 모두 다 향하기 때문에 동교이고, 海印定 중에서 法性만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교이다.</p> <p>9. 海印定에서 法性を 말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지 않기도 하는 까닭은 중생의 근기가 수승하고 열등한 것과 깊고 얕음이 섞여있기 때문에 동교라고 보았다. 즉 어떤 때에는 勝으로써 劣를 삼고, 어떤 때에는 劣로써 勝을 삼으므로 필요에 따라 정할 뿐이다. 이 해인선정의 법성은 말할 수 없는 가운데 말하고 말하지 못함(不說)이 두가지가 구별할 수 없는 무분별의 자리이기 때문에 별교이다.</p> <p>‘總相의 뜻은 圓敎에 해당하고, 別相의 뜻은 三乘敎에 해당한다’ 는 것에 대하여.</p> <p>▲問; 圓敎는 同敎인가, 別敎인가?      答; 이는 同敎이니, 이른바 印이 원만한 것은 圓敎이고 54각은 三乘이다. 그러므로 圓敎 및 三乘이 모두 동교同敎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印의 원만함을 떠나서는 모든 角이 없으며, 모든 角을 떠나서는 印의 원만함도 없기 때문이다.</p>
<p>• 『大記』智儼의 五重海印과 신림의 五重總別</p>	<p>『大記』神琳 대덕은 이것을 의지하여 五重總別을 세웠으니, 이른바 첫째, 別을 떠난 總은 五重海印의 첫 번째 忘像海印이다. 둘째, 別을 거느리면서 別을 떠난 總은 또한 緣 중에 나타나지만 緣을 떠난 總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現像海印이다. 셋째, 總이 곧 別이고 別이 곧 總이니 세 번째 外向海印이다. 넷째, 總이기도 하고 別이기도 한 것이 네 번째 定觀海印이다. 다섯째, 總도 아니고 別도 아닌 것이 다섯 번째 語言海印이다. 이른바 別을 거두어 잡아서 總을 이루기 때문에 總이 아니며, 總에 의지하여 別을 이루기 때문에 別이 아닌 것이니, 모두 형체가 없기(形奪) 때문이다. 이 5중 안에서 첫번째 망상해인이 총이 되면 두번째 현상해인이 별이 되고 또, 두번째 현상해인이 총이 되면 세번째 외향해인이 별이 된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總別을 짓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서로서로 각기 총별을 갖추고 있으므로 첫번째 망상해인을 제거하고 두번째 현상해인에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증득한 것이 총이 되며, 그때 나타나는 삼세간이 별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별이 총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p>
<p>2)名字相</p>	<p>2)名字相, 시를 이룬 글자들.</p> <p>▲問; 시의 첫 글자와 끝 글자가 정해져 있는 까닭은?      答; <u>도를 닦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과보가 결과가 되므로 원인과 결과가 서</u></p>

3) 문장에 내포된 의미 해석

로 구분됨을 표시.

▲問; 글자들이 돌아가며 놓인 까닭은?

答; 삼승에 속한 수행자들의 근기와 의욕에 차별이 있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표시.

▲問; 처음의 법자와 끝의 佛자를 圖印의 한가운데 배치한 까닭은?

答; 도 닦는 것과 그 과보 즉 因과 果의 법성이 서로 같음을 표시하고 眞實德用과 本性이 다 중도에 속함을 표명.

圖印의 한 요소인 문자에 대한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본성에 있어서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교설이다. 이로 인하여 화엄종만의 특유한 六相圓融의 논리가 전개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3)문장에 내포된 의미 해석

▲問; 앞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같지 않다고 하고서 여기서는 實德이 法性家 안의 中道에 속한다고 한 뜻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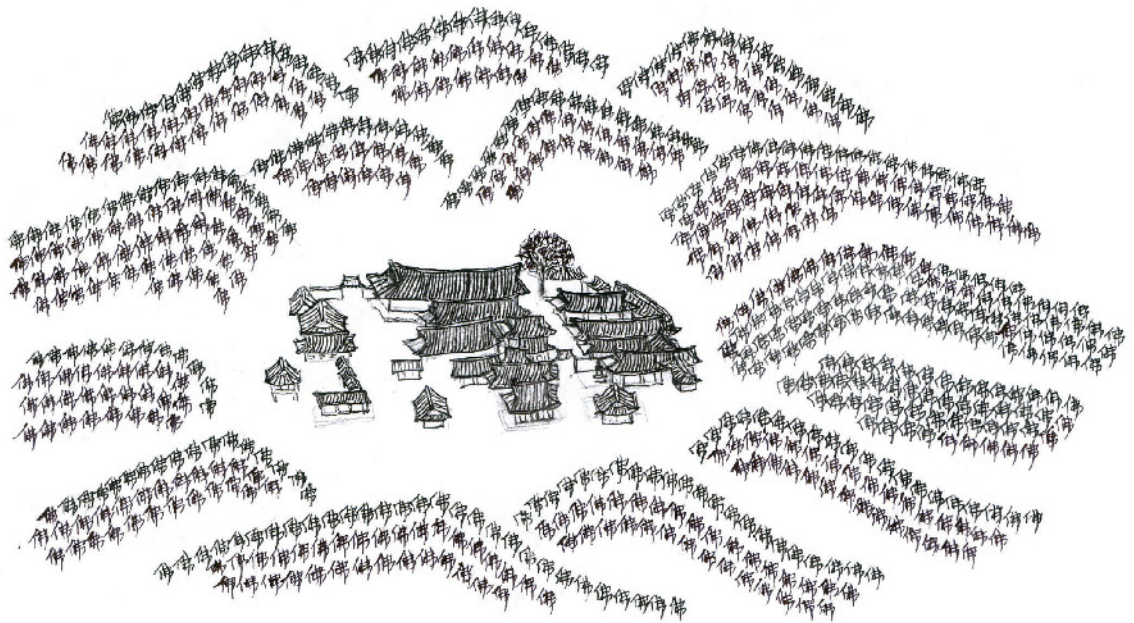
答; 『十地經論』의 바수반두(vasubandhu)가 六相으로써 방법론정립. 一乘과 三乘간에 主伴이 서로 이루어져 법의 분체를 나타낸다. 總相- 根本圖印-圓敎에 해당/ 別相- 나머지 굴곡을 이루고 있는 依止印. 根本印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三乘敎에 비유/ 同相-굴곡이 각별하면서도 한 모양의 印이라는 점/ 異相-굴곡 별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異相/ 成相- 印이 이루어진 입장/ 壞相-해체하여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입장/ 그러므로 六相은 一體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며 항상 中道에 속한다. 일승과 삼승의 관계도 主와 伴이 서로 助力하여 하나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니 비록 중생을 이익 되게 하더라도 오직 중도에 속할 뿐이다. 一乘別敎와 三乘別敎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한다. 질문의 취지가 이와 같으니 처음의 굴곡은 因과 같고 뒤의 굴곡은 果와 같아서 처음과 뒤가 같지 않으면서도 오직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원인과 결과가 별개이지만 스스로 불변의 본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삼승의 방법론적 차별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지만 一乘圓敎에 의하면 전후가 없다는 것. 卍

〈다음호에 계속〉



# 지금, 여기

유연 / 사교과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생각생각이 부처심이면

머무는 곳마다 만각정토라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안락

## 작은 것은 작은 것인가?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바람에 습기가 느껴진다 싶더니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를 몰고 동곡으로 옷을 수선 하러 나가는 길이었다. 이 깊은 시골에서 누가 이사를 가는 모양이다.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비를 맞으며 하얀 비닐로 이삿짐을 덮어씌운 채 조그만 용달차에 소박한 짐을 싣고 누군가 이사를 가고 있었다.

1974년 그 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 때는 TV가 귀한 시절이었고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모두 텔레비전을 보시곤 하셨다. 아버지가 재미없는 뉴스를 볼 때마다 도대체 저걸 왜 보나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만화프로그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온몸을 비비 꼬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나이였다. 그날은 뉴스보다 더 재미없는 8·15 광복기념 행사를 어른들이 우리 집에서 보고 계셨다. 방구석에서 심심해하며 놀고 있었던 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갑자기 TV에서 총소리가 났으며 TV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더불어 우리 집 방 안에서 놀라시며 당황해 하시던 동네 분들의 모습은 ‘아!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육영수 여사가 총을 맞은 것이다.

1979년 10월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날은 가을 소풍날이었다. 김밥과 환타, 삶은 계란과 피자 동등을 잔뜩 싸가지고 우리는 소풍을 신나게 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그냥 교실에 앉아서 김밥을 먹고 피자를 먹고 환타를 마셨다. 선생님들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분위기가 천방지축 시끌벅적 떠들어대던 말괄량이 여중생들을 소곤 소곤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다. 뭔가가 이상했고 심상치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계엄령이란 것이 선포되고 싸이렌 소리가 나고 우리는 무섭고 겁이 났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다.

1987년 나는 대학교 2학년이다. 박종철 고문 사건이 일어났고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박종철 고문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학생을 어른이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게 고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나는 박종철의 부모님을 걱정했었던 것 같다. 자식이 고문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다짐했었던 것이다. ‘박종

첼'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리라. 우리 시대는 그에 빛을 지고 있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맥없이 죽어간 이들을 위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이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2016년 가을 이제는 TV의 뉴스를 즐겨 보는 어른이 되었다.

이 좋은 계절 신문 일면 토픽기사와 인터넷에 한 달 넘게 장식된 단어들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최태민, 정유라, 국정농단, 비선실세, 뇌물, 부정청탁, 특혜, 탄핵, 하야, 퇴진, 세월호 7시간, 국정교과서 반대 등등이다.

육영수와 박정희 그리고 그 당시 영애라고 부르던 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어느 시점부터 201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뭔가 엄청난 오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계속 빨간 신호를 내며 위험함을 알리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이 다. 그것의 최종 결과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사건들이 아닐까.

광화문엔 촛불이 100만개를 넘고 200만개를 넘어 남녀노소 모두 모두의 손에 밝혀졌다.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광화문엔 최루탄이나 화염병 대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빛나고 있다. 공유와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시대이다. 시위 문화가 축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는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촛불

의 행렬은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끝없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간절하게 한 마음이 청정해져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지는 발판이 되고, 그 많은 마음들이 모여 온 세상을 청정하게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교훈으로 우리는 좀더 정직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 계단 우뚝 올라설 것임에 틀림없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물방울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니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신선하고 새로운 색깔의 희망이 보인다. 어둠의 끝에서 비로소 밝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점점 환해질 것이다.



짧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만 믿고 갖은 고생을 하던 시절. 가난한 몇 개의 짐을 옮길 때면 항상 비가 왔었다. 왜 내가 이사만 가려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거지? 하며 심란해하는 나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 오는 날 이사가면 부자로 잘 산다.' '정말요?' 하며 나는 그 한마디에 웃을 수 있었다. 아마도 그때 스님은 고생하는 젊은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어느새 이삿짐을 실은 용달차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혼자서 축원해 드려야 한다. '비 오는 날 이사가면 좋은 일 가득하고 항상 행복하실 것' 이라고. ☸



# 용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2

원행 / 사교과

## 목 차

- I. 머리말
- II. 『귀원정종』의 수사학적 고찰
  1. 『귀원정종』의 구성과 내용
  2. 수사학적 구조의 고찰
- III. 철학적 해석학과 『귀원정종』
  1. 지평융합
  2. 현대적 해석의 실제
- IV. 맺음말

## 2. 수사학적 구조의 고찰

설득의 논증 다음으로 『귀원정종』에 나타나고 있는 수사학적 특징은 교리에 대한 ‘점층적’인 설명 형식이다. 체계적이고 점차적인 서술의 진행은 질문자의 의혹을 단계적으로 해소시키며 저자의 논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 『귀원정종』 전반에 나타나는 점층적 배치는 하권 시작부분에서 석존의 초인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권 제 1장 「佛之降神先現五種瑞：부처님께서 강신하시기에 앞서 나타났던 다섯 가지 상서」부터 제 6장 「佛之降魔：부처님께서 마군을 굴복시키다」까지는 석존의 신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출생 전부터 있었던 5종의 상서를 비롯하여 출생 시의 광명과 진동, 32상과 80종호鍾好的 거룩한 위의, 출생 당시의 34종의 상서로운 현상과 일체 마군을 조복調伏받은 위신력威神力 등을 언급하고 있다.<sup>20)</sup>

기독교와의 논의를 이끌어어나가는 첫 부분을 석존에 대한 상서와 신통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도를 보여주는데 기복적인 포교를 펼치는 기독교의 예수가 보인 이적異蹟들이 이를 수행의 지엽적인 부분으로 규정한 석존의 신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과 그러한 상서로움과 신통이 뒤이어 전개되는 그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최하위에 속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기선 제압으로 앞으로 전개될 담론에 있어서 불교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결정한다.

이어서 용성은 성문에서부터 불보살의 계위에 이르기까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수행의 강요綱要를 차례차례 서술하면서 읽는 이들을 점차로 구경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간다. 최종적으로 간화선에 이르러 구경의 경지가 서설敍說되는데 선사로서의 본지를 드러낸 이 부분은 이타적 방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나 종국終局에 도달하게 될 이 경지에 대해 용성은 선지자先知者로서 그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입문에서 완성까지의 이러한 전일적全一의 경험은 우리를 최상의 가르침, 불법의 클라이맥스(dimax)로 이끈다. 그 이해의 정점에 도달하는 동안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전환되고 불교 자체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이는 또한 질문자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끌어올리는 차제설법次第說法의 형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종縱적인 전개와 더불어 이해의 횡橫적인 확대 과정은 적대적인 타자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회통의 장場을 조성한다.

이러한 수사학적 관점은 『귀원정종』의 논리적 구조를 바라보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대론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다시 점층적 구조를 밟아 올라가면서 일으키는 질적인 변환은 불법의 옹호와 전파에 있어 결론적으로 융성의 시대적 모색이 적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 III. 철학적 해석학과 「귀원정종」

#### 1. 지평융합

철학적 해석학(Philosophical Hermeneutics)<sup>21)</sup>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 그 자체에 있다. 텍스트의 이해가 인식론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전향轉向됨에 따라 해석을 위한 해석은 존재의 삶 자체에 대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다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말해진 것에 대한 현재적인 참여’로서 현재 삶에서 체화體化되어 나타나는 것, 삶의 결과로서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텍스트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옮겨놓고 그 안에서 우리 시대의 물음에 제공하는 대답을 듣는 것’<sup>22)</sup>으로 현재적 지평에서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텍스트와 해석자 서로간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된다. 철학적 해석학에서 질문과 답변은 텍스트와 해석자가 대화함으로써 공동의 의미, 진리를 생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와 해석자간의 ‘공유’로서 해석자의 임의적 해석으로 텍스트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거나 저자의 심리로 이입移入함으로써 해석자의 주체적인 입장을 배제하게 되는 일방적인 과정을 지양止揚한다. 서로의 동의를 구하는 이 과정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텍스트와 해석자가 더불어 공유하는 진리를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텍스트는 변화하는 매 순간마다 다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은 독단성을 배제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띠며 이로 인해 상호간의 대화가 확대된다. 텍스트는 해석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석자 또한 텍스트에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던지며 서로에게 접근해간다. 이러한 변증법적 놀이<sup>23)</sup>를 “지평용

20) 용성 진중 著/원조 각성 譯, 위의 책, pp.230~246

21) 해석학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 문헌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규칙 또는 해석의 기술이었으나 프리드리히 슈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이후 종래의 범주를 넘어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간주되었다. 마르틴 하이데거(M. Heidegger)를 거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에 이르러 해석학은 존재론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데 존재론으로 규정된 해석학은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삶의 존재 방식, 인간의 ‘세계-내-존재’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존재 그 자체의 양식으로서 해석과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인 철학적 해석학이 탄생한 것이다.

22) 권형량,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적용의 문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p.42

23) 철학적 해석학을 제시한 가다머는 ‘놀이’의 개념이 존재론적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놀이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며 놀이의 목적은 결코 과제의 해결이 아니라 놀이 자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욱,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주석 123, 재인용.

합”이라고 하는데 텍스트의 과거 지평과 해석자의 현재 지평은 항상 서로에게 열려 있으면서 이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귀원정종』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다양하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귀원정종』이라는 텍스트에 가지게 되는 의문이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해석학적 과제는 텍스트에 모종의 기대를 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원정종』에서 용성의 의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텍스트는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귀원정종』이 선사의 논증이라는 점은 우리의 관심을 유발시키며 해석학적 의문을 일으킨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성의 목적은 중생들을 위한 이타적 언어의 사실에 있지만 텍스트와의 대화에서 관심사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창출에 있어서 어떠한 지평들이 융합되고 있는지에 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가운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탐색<sup>24)</sup>하게 되는데 이는 텍스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외부적 지평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은 삼문

수학三門修學이라는 수행체계이다. 이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수행체계로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염불문念佛門을 말하며 그 내용은 선禪, 교학敎學, 정토淨土를 가리킨다.<sup>25)</sup> 이 수행체계는 참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학과 염불을 보완적인 수행법으로 병행하는 것<sup>26)</sup>으로 당시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양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만큼 보편적인 수행의 흐름이었다. 용성 또한 9개월 동안 대비주大悲呪와 육주주六子呪 지송持誦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주력과 염불을 일반 대중들에게 권하는 한편<sup>27)</sup> 선정수행을 통해 오도悟道를 경험했으며, 『기신론』, 『능엄경』, 『화엄경』 등의 교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체계를 정립함으로써<sup>28)</sup>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평을 우리의 지평 속으로 받아들인 채 저술 배경을 추정해 보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는 이 보편적인 흐름이 『귀원정종』이 보여주는 그의 종교관과 현실 인식 등의 여러 측면 또한 규명할 수 있는지 반문反問한다. 우리는 다시 과거의 지평들로부터 해석적 기반을 모색하며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

그의 수행과 사상에 관한 내부적 지평은 우리를 좀더 전체적인 시야로 이끈다. 용성은 경전을 읽

24)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새로운 이해를 위한 원천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우리는 『귀원정종』과의 시간적 거리 속에서 이해를 위한 수많은 역사적 지평들을 소급하여 텍스트와 대화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해석적 진리에 접근하게 된다. 박상욱, 앞의 논문, p.27, 참조.

25) 고려 중기 보조 지눌普照 知訥이 처음으로 삼문三門을 언급한 이래 조선 후기 평양 언기顯羊 彦機가 이를 하나의 수행체계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지눌이 제시한 삼문三門은 간화경절문着話徑截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성적등지문性寂等持靜門이었으나 이후의 삼문은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염불문念佛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구조와 의미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호정, 『용성 선사의 선사상』, 『한국선학』 제 34집, 한국선학회, 2013, pp.6~7

26) 조선 전기 불교 종파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으로 통폐합되면서 선종은 참선만 절대시하던 풍조에서 점차 교학과 정토신앙에 대해 포용적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선교양종禪敎兩宗이 다시 선종으로 단일화되면서 모든 수행문을 선종의 영역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18세기에 와서 원돈문과 염불문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삼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삼문직지三門直指』가 간행되었고 선사들은 화엄교학과 정토신앙을 경절문과 동등한 수행체계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종수, 『조선 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p.87~89

27) 호정, 위의 논문, pp.12~16

28) 신규택 교수는 교학에 대한 용성의 입장이 『화엄경』의 ‘一心緣起’ 사상과 『기신론』의 ‘一心二門’ 사상과 『능엄경』 및 『원각경』의 ‘圓覺妙心’ 사상에 바탕을 둔 ‘법상法性’의 철학이라고 본다. 신규택, 『각해일물』, 분석-동북아시아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대각사상』 제 11집, 대각사상연구원, 2008, p.263

거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수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비주와 육자주를 9개월간 독송함으로써 업장을 소멸한 상태에서 의정疑情을 일으켜 통달이 빠진 것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네 차례의 오도悟道を 경험한 후에 다시 강원 이력과정에서 있는 여러 경전들을 열람<sup>29)</sup>하는 독특한 수행 이력을 보여주는데 그의 깨달음, 대각大覺은 이러한 이론적 체계를 통해 대각사상大覺思想으로 정립된다.

그는 저서 『용성선사어록』에서 ‘대대’라고 말한 것은 각覺과 소각所覺을 여의고 모든 상대하고 의지함對待을 단절함을 이르며 ‘각覺’이라 말한 것은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원만하며 장애가 없음을 이룬다고 하여<sup>30)</sup> 대각大覺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각이란 ‘대원각체성大圓覺體性’으로서 천지와 한 근본이고 만물과 한 몸인 일심一心이고 진여眞如이다. 용성은 자신이 체험한 이 ‘대각’을 이론화함으로써 모든 수행과 활동 및 저술의 기저를 이루는 사상체계, ‘대각사상’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각’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귀원정종』이다. 상권 제 2장, 14장, 17장, 26장과 하권 제 11장 등 여러 곳에서 각覺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종합해보면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이자 만물의 본원이며 인간의 본성이고 만법의 근원”으로서<sup>31)</sup> 대각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평을 통해 우리는 『귀원정종』

이 대각사상을 이론화하는 최초 시작점으로 자기철학화된 사상적 토양 위에서 성립된 저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귀원정종』이 용성의 수행과 종교관 및 현실인식 등 모든 요소들이 대각으로 해석된 후 언어로 재구성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형의 깨달음이 유형의 사상체계로 정립되는 시점의 포착으로 이언진여離言眞如에서 의언진여依言眞如로 전개되는 이후의 과정에서 해석자는 선사의 논증에 자연히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대각사상을 근본종지로 하는 대각교大覺敎의 목적에서 그가 ‘호불론護佛論’의 형식을 선택한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귀원정종』에서 체계화되기 시작한 대각사상은 1922년 대각교의 창시創始로 이어졌고 이 대각교는 모든 이들에게 불교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대각원성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모든 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sup>32)</sup> 이는 『인왕경仁王經』, 『금광명경金光明經』 등에 나타나고 있는 호국護國의 정의, 즉 호법護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기서 진정한 호국은 반야바라밀의 수지受持, 정법의 수호로 나타난다.<sup>33)</sup> 따라서 각각이 지닌 대각원성을 체득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본래 구족하고 있는 정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곧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평에서 볼 때 그는 불교의 주체성을

29) 용성은 「기신론」, 「원각경」, 「금강경」, 「경덕전등록」, 「선문찰요」 등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 논의되는 이론들을 자신의 깨달음을 해석하는 체계로 활용하게 된다. 신규택, 앞의 논문, pp.276~277, 참조

30) 백용성, 백용성대중사총서 간행위원회 편,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중사총서 제 1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p.322

31) 호정, 「용성선사의 대각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pp.20~21

32) 백용성, 백용성대중사총서 간행위원회 편, 『각해일문』, 백용성대중사총서 제 2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6, p.302

33) 「인왕경」, 「호국품護國品」에서는 국가적 위기에 대해 “일체 국토가 만약 어지러워지려 할 때 모든 재난과 도적이 와서 파괴하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때 “모든 임금은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기억하여 외우며 도량을 장엄하게 꾸미어 백 개의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백 개의 보살상을 모시고 백 개의 사자좌에 백 명의 법사를 청하여 이 경을 설”하는 장엄한 법회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매일 왕을 비롯하여 사부대중이 매일 두 때(二時)에 듣고 기억하여 읽고 법담게 수행하면 재난이 곧 멀고 국토가 보호될 것’이라고 한다. 또 『금광명경』의 「사천왕품四天王品」과 『법화경法華經』의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다라니품陀羅尼品」 등에서도 호국으로서의 호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 조준호, 「경전 상에 나타난 호국불교의 검토」, 『대각사상』 제 17집, 2012, pp.19~25



회복하는 일과 일제에 침탈당한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동일하게 인식했을 것이며 그러한 인식 하에서 호블론의 형식을 택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러 우리는 텍스트와 공유하는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일단의 과정은 끝없이 진행되면서 지평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해석학적 시야는 더욱더 넓어진다.

## 2. 현대적 해석의 실제

대화를 통한 지평의 공유가 진행되는 동안 해석 역시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과거와 현재의 두 축이 지평의 공유라는 접점을 두고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과거의 지평 A는 적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재에 투영된다. 변화하는 현재의 지평 A'는 곧 과거의 텍스트가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반증反證한다. 이렇게 투영된 현재의 지평은 과거의 지평과 같지도 또한 다르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내는 것이다.<sup>34)</sup> 대화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해석적 진리, 『귀원정종』과 우리의 공유점은 우리의 삶에서 이타적 학문의 추구와 이타적 수행의 지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곧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학문적 모색 과정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된 수행정신이 철학적 해석학의 입장에서 『귀원정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실제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타적 학문의 추구는 용성의 『귀원정종』에 나타난 이타적 언어의 시설과 공유점을 가진다. 대원각체성이 언어의 형태를 빌려 이타를 실현하고 있다면 타자他者와의 공유를 지향하는 우리는 어떤

학문적 모습을 빌릴 수 있을까. 용성의 시대와 현재 우리 사이의 간격은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개방성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텍스트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용성의 언어적 방편과 공유점을 가지는 학적學的 영역, 특히 불교해석학 분야<sup>35)</sup>에서 이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불교 텍스트에 접근하는 시도는 분명 이타적 모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통적인 불교해석학적 방법을 현대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방편으로 지금 우리의 앞에 이 텍스트가 오기까지, 그리고 텍스트와 대화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수없이 많은 지평공유의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온 불교해석학적 흐름을 도외시하고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지평들은 지금 현재 지평의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방법론과 그 개념들이 단순히 불교에 이식移植되는 것으로는 점점 고조되는 해석학적 갈등을 풀 수 없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해석학 스스로가 새로운 개념과 외연外延으로 거듭남으로써 달을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이타적 학문의 실제인 것이다. 현실 지평에서 이러한 이타적 학문의 예시는 다양하게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히 몇 가지 흐름을 짚어보고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

〈다음호에 계속〉

34) 가다머에게 '이해는 항상 상황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철학이라 명명한다. 김석수, 『가다머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철학논집』 제 8집, 1997, p.128

35) 이어지는 논의에서 불교해석학은 협의狹義의 해석학과 아울러 불교가 보는,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결국 근본적인 수행정신에 대한 자각과 재정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我 민재/사집과

세상사람들은  
 ○라고 말한다  
 모든것에  
 내세운다  
 모든것을  
 ○중심으로하려고 한다  
 ○라는것을  
 가장  
 소중한게 여긴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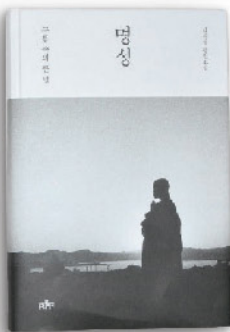


세상사람들은  
 ○라고 말한다  
 모든것에  
 내세운다  
 모든것을  
 ○중심으로하려고 한다  
 ○라는것을  
 가장  
 소중한게 여긴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무엇인가



## 〈구름 속의 큰 별, 명성〉을 읽고

지우/사집과



우리는 운문사에 살고 있으면서 운문사를 잘 모릅니다. 왜 은사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운문사엘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큰 의심을 품지 않았고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다기보다 어렴풋이 우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문사에는 많은 스님들의 깊은 날의 신심과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고, 또 그 세월 동안 마치 관세음보살님처럼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학인들을 보살피 주시고 도량을 가꾸어 오신 명자 성자 회주스님이 계셔서, 그 세월들을 증명하고 우리 같은 초발심자의 귀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주스님에 대한 일화들은 세간과 출세간을 떠나 전설처럼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년소녀, 인옥보살, 밀리미터(mm) 스님 등 별명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모습이 진짜 회주스님인지 직접 스님을 뵈고 스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회주스님께서 직접 강의도 하셨다는데, 지금의 우리 운문사 학인대중으로서는, 특히나 까마득한 아랫반인 치문과 사집에게는 먼 곳에서 빛나고 있는 별 같은 분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번 회주스님께 직접 들었던 북유럽 여행기에 우리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그만큼 우리는 회주스님께 가까이서 배우기를 늘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하늘은 높아져만 가던 지난 가을, 남지심 선생님의 소설 『구름 속의 큰 별, 명성』을 만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늘 같은 하늘이지만 또 늘 다르게 느껴집니다. 회

주스님에 대한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삶은 몇 번을 다시 비추어 봐도 그때마다 큰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이 책은 회주스님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것으로 회주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인연, 운문사에서 회주스님께서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스님의 수행자, 교육자, 행정가,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주스님께서 운문사 강원에 오신 지 약 50여 년, 누가 봐도 그동안 회주스님께서 운문사에서 하신 일들은 한 사람이 일생을 바쳐 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000여 명의 비구니 제자들을 길러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의 운문사는 회주스님 한 분의 원력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새삼 또 놀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운문사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처소도 번듯하지 못했던 운문사에서 오십대 후반의 나이에 학기 중 1인 100억을 맡아 하시면서도 방학이 되자 추운 겨울에 전국을 돌며 권선하러 다니셨고, 그 권선을 끝내고 돌아오신 다음날 스님의 어금니 두 개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낙엽이 자꾸만 떨어져 도량 청소하기 힘들다고 툭툭거리는 제 가슴에 묵직한 뭔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도량 곳곳에 회주스님의 땀과 숨결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절절하게 느낀다면 낙엽이 쌓여만 가는 도량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원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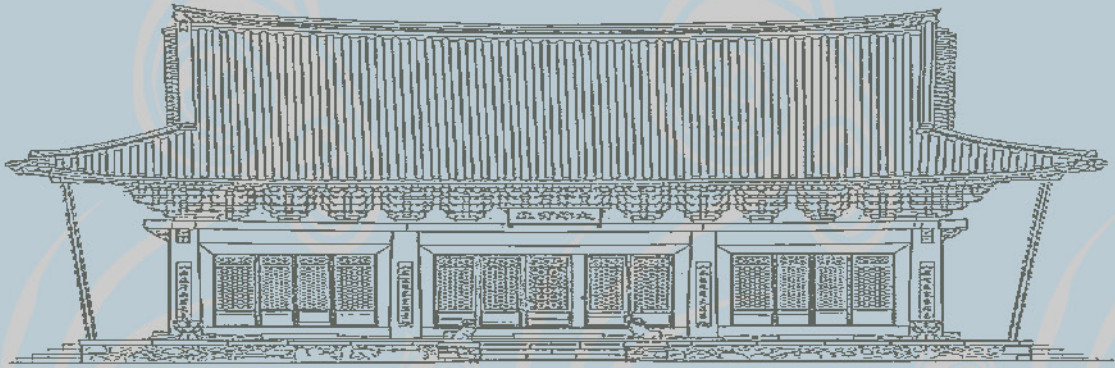
“원을 세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듯이 원을 세우면 그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종궤가 있다 해도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될까 말까 하고 의심하지 말고 철저히 원을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회주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늘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듯 일생을 거쳐 한결같이 스스로 모범이 되신 스승님이 계실까요?

육신의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회주스님께서서는 원력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에 주렁주렁 빨갭게 감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책에서 보았던 회주스님과 학인들의 따뜻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 옛날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배가 고프는 학인들은 마을에서 감 서리를 했고, 감나무 주인이 화가 나 운문사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학인들을 꾸짖으시기보다는 서리를 안 할 수 있도록 서리당한 그 감나무를 사서 감을 실컷 먹게 해주신 회주스님의 모습에서 학인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학인들과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고 나니 회주스님께서 한결을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주스님을 뵈고 싶다면, 운문사를 알고 싶다면, 또 바닥난 신심을 충전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회주스님과 한 시대에 운문사 도량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복作福과 회향廻向의 두 날개짓을 쉼 없이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회주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 대웅전 다시 보기 2

동호/사집과

### ③ 인육



『본생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남인도 부단나성의 브라만 집안에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왕은 가리歌利로 성질이 포악하고 교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출가해 도를 닦는 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꽃구경을 나왔습니다. 왕이 잠이 들고, 몇몇 궁녀가 선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녀들이 법을 청하자 선인은 탐욕심을 끊어주고자 법

을 설했습니다. 잠에서 깬 왕이 법을 듣고 있는 궁녀들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선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렀는가.”

“아직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탐욕 번뇌를 다 끊지 못했을 터인데 어찌 남의 여자에게 법을 설하는가.”

“대왕이시여, 제가 비록 탐욕의 업을 온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실로 탐착심이 없음을 알아주십시오.”

“우습구나! 세상에 선인이 숨만 쉬고 나무열매만 먹더라도 여색을 보면 탐하기 마련인데 그대는 젊고 탐욕도 온전히 끊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여색을 보고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가.”

“대왕님, 저는 아직 탐욕의 업이 남아 있지만, 마음은 청정합니다. 여색을 보고도 탐하지 않는 것은 나무열매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무상無常과 부정不淨함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왕은 나이도 새파란 놈이 바른 말을 한다고 여겨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물겠다. 계戒란 무엇인가.”

“지혜를 바탕으로 참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라면 너의 귀를 한번 잘라보겠다. 그리하면 네가 계를 지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포악한 왕은 그 자리에서 선인의 귀를 자르고 코와 팔다리마저 베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하늘 나라 왕이 조약돌과 모래를 비 내리듯 쏟아냈습니다. 이를 본 왕은 두려워 무릎을 꿇고 앉아 참회를 청하였습니다.

“대왕님, 저에겐 탐욕이 없듯 노여움도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그런 줄을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참으로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몸이 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을 말하자 몸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계란 지혜를 바탕으로 참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항상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며 자신의 탐욕을 바라볼 수 있으면 계는 집착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지켜집니다. 산티페바라는 선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는 것보다 더한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습니다.”



#### ④ 정진

절벽 위의 수행지는 교족翹足정진하고 있는 아난존자입니다. 교족정진이란 교족은 올린다는 뜻으로 발뒤꿈치를 들고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세에 불사불佛沙佛이 화정삼매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쪽 발뒤꿈치를 들고 7일 밤낮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문제일이라고 불리는 아난존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8살에 출가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아난존지는 부처님 열반 후 열린 칠엽굴의 결집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난존지는 벼랑 끝에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칠일 밤낮을 자지 않고 정진하여, 마침내 아라한과를 얻어 결집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발꿈치마저 들어올리는 간절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과 게으르지 않는 정진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 ⑤ 선정

달마 대사가 9년의 면벽에 들어 있던 어느 날, 신평이라는 스님이 찾아옵니다.

“제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께서는 부디 불안한 제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

신평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스승의 허락을 받고자 눈 속에서 마냥 기다립니다. 정성에 감동한 달마 대사가 신평에게 혜가라는 법명을 주고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선불교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보리달마가 이조혜가에게 준 계송입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혈떡이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처럼 되었을 때



가히도에 들 수 있다” (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관계를 끊고 참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관계에서 안으로 혈떡거림이 없는 평안함 즉 선정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⑥ 반야

반야는 뛰어난 지혜를 뜻합니다. 지난 밤 잠결에 마신 달콤했던 물은 깨어 보니 축루수였습니  
다. 유명한 원효 대사의 깨달음에 관한 벽화입니다. 깨달음의 계승을 들어볼까요?

마음이 일어난즉, 가지가지 경계가 일어나고 (心生則 種種法生)

분별심이 사라지니 감실(龕)과 무덤(墳)이 다르지 않네(心滅則 龕墳不二)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이 또한 식識에 기초한다(三界唯心 萬法唯識)

마음 밖에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라!(心外無法 胡用別求)

모든 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조화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닦음  
으로 마음의 분별을 깨고 뛰어난 지혜로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릅니다. ❁



## 심검尋劍 지혜의 샘을 찾는다 편집부

겨울로 다가선 11월 어느 날, 바람을 메고 일주문을 나선 우리는 참선수행의 필요성과 수행에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을 청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석남사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동안거 결계포살로 선방에 입선이 없었고, 대중 스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무소에 계시는 재무스님의 인솔하에 주지스님을 뵈고 손편지를 조심스레 내밀어 보여드리며 석남사를 찾게 된 까닭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입승스님과 짧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방문이 공연히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석남사 입승스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편지글로 각색해 풀어봅니다.



### 학인스님들께

병신년인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지산 자락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 제법 추운 겨울입니다.

저의 강원시절 상근기는 참선을 하고 중근기는 경을 보고 하근기는 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선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상근기가 되고 싶었으나 봄니다. 강원 졸업 후에 바로 선방으로 가도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해요. 뜻이 있으면 와서 몸을 조복받아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어느 곳이나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듯이 앓는 훈련이 되지 않은 초심자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 당연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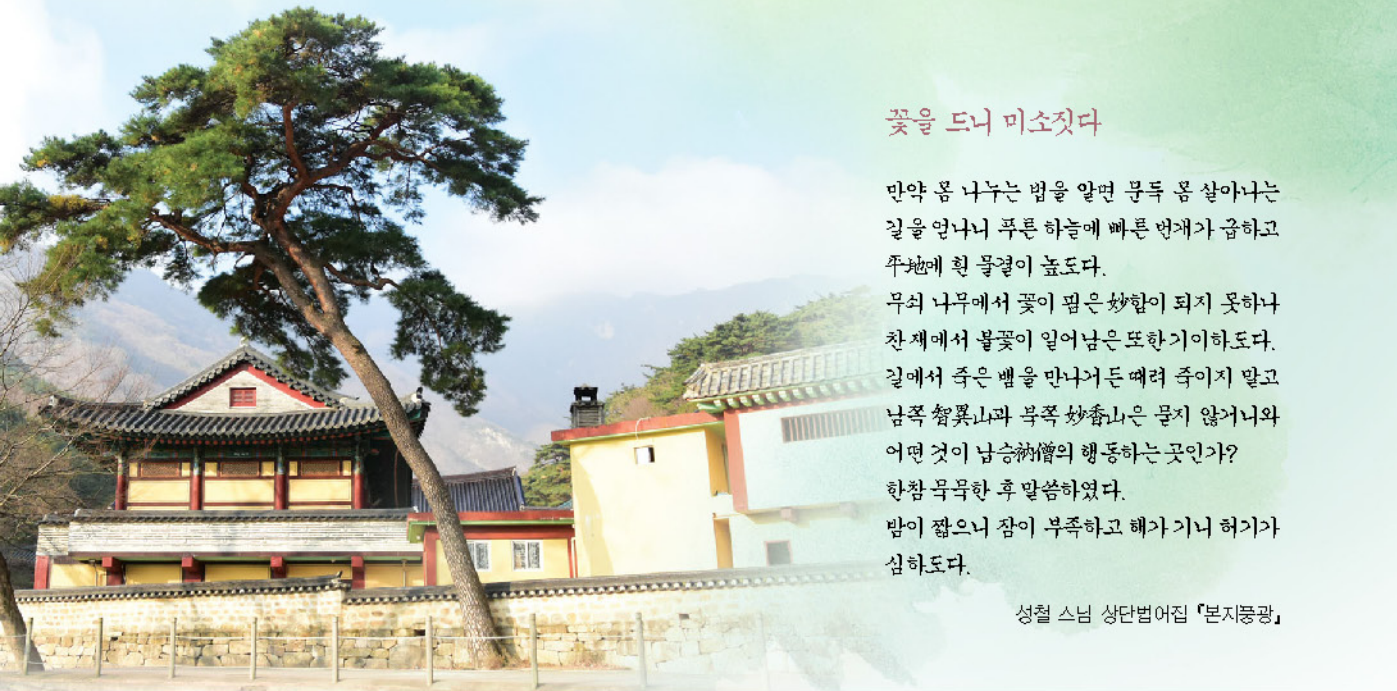
강원시절 상하반의 관계가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또 그런 대중 속에 있을 때가 갑자기 둥글둥글하게 겹질이 벗겨지듯이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는 때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수행자의 본분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로 아는 것, 바로 나의 본지공판을 보는 것이지요.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에 참선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을 통해서 하는 이것 뿐이에요.

예전에 수마睡魔로 많이 힘들어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화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지요,



## 꽃을 드니 미소짓다

만약 몸 나누는 법을 알면 문득 몸 살아나는  
길을 얻나니 푸른 하늘에 빠른 번개가 굽하고  
平地에 흰 물결이 높도다.

무쇠 나무에서 꽃이 피은 妙함이 되지 못하나  
찬 재에서 불꽃이 일어남은 또한 기이하도다.  
길에서 죽은 뱀을 만나거든 때려 죽이지 말고  
남쪽 智異山과 북쪽 妙香山은 묻지 않거니와  
어떤 것이 남승 衲僧의 행동하는 곳인가?  
한참 묵묵한 후 말씀하였다.  
밤이 짧으니 잠이 부족하고 해가 기니 허기가  
심하도다.

성철 스님 상단법어집 『본지풍광』

화두가 없이 앉는 것은 목적지를 찾아 가는 길에 지도가 없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방을 때는 꼭 화두가 있어야 합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계실 때 정진대중을 위해서 말씀하신 본지풍광이란 상단법어집에서는 참선의 궁극적 목적은 견성이며, 견성하는 방법은 불조의 공안을 참구함이 가장 첩경捷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단법어는 학인스님들에게 어렵겠지만 조사스님들의 공안을 잘 참구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공부는 대중에서 해야 합니다. 저 역시 토굴에서 수행해 보았지만 보통 근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이 많이 들어요.

선방에서 공부한다고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 말고는 없어요.

학인인 지금은 강원에서 춘음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시고, 졸업하면 석남사에 철 내려 오세요.

병신년 11월  
가지산 수좌 합장

## 내가 행복해지는 길

탄현 / 사교과

“행복하십니까?” 제게 누군가가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布施’라고 하죠. 보시의 의미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베풀다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것이 상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재칠시無財七施 : 재물 없이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 이것이 바로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보시입니다.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이 그대로 보시행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무재칠시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재칠시의 가르침은 『잡보장경雜寶藏經』 제 6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 보시가 있으니, 그것은 재물의 손해가 없이 큰 과보를 얻는다.

첫째는 눈의 보시(眼施:안시)니,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스승·사문·바라문을 대하고, 나쁜 눈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눈의 보시라 한다.

화합하여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의 사회에 꼭 권하고 싶은 첫 번째 보시입니다.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첫 만남에 상대를 제압하고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이런 눈빛은 서로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불신을 심어주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의 보시(和顏悅色施:화안열색시)이니, 부모·스승·사문·바라문에 게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곧 표정의 보시입니다. 흔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늘 싸우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성나고 무심한 표정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서로 간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화기에애하고 자비로 가득찬 미소는 그 주위를 환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씨의 보시(言辭施:언사시)이니, 부모·스승·사문·바라문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언사시는 삼업三業 가운데 구업口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천수경에서도 첫 구가 바로 우리의 구업을 밝히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이나 TV 등 대중매체에서도 험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로 감사를 표하는 것, 공손하고 친절하며 예의바른 아름다운 말 한 마디,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동시에 따뜻한 보시행이 됩니다.

넷째는 몸의 보시(身施:신시)이니, 부모·스승·사문·바라문을 보면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의 보시라 한다.

신시는 신업(身業)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몸으로 남을 돕는 행위들이 바로 몸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이렇듯 예의바른 몸가짐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心施:심시)이니,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일로써 공양하더라도 마음이 화하고 착하지 못하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착하고 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는 것이 마음의 보시이다.

마음의 보시를 '사무량심四無量心' 으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사무량심이란 타인을 대할 때 그 마음 씩씩이를 나타냅니다.

자라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비애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 희호는 남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 사捨는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 그대로가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床座施:상좌시)이니, 만일 부모·스승·사문·바라문을 보면 자리를 펴 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든 행동이 양보인 것입니다. 아픈 도반스님을 위해 대신 울력을 해주는 것 또한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보는 바로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의 실천과 동시에 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방이나 집의 보시(房舍施:방사시)이니, 부모·스승·사문·바라문으로 하여금 집안에서 다니고 서며 앉고 눕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보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불成佛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살菩薩은 일체 중생이 두려움 없는 평안한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시바라미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꾸만 베풀고 베풀어 보시의 씨앗을 심어 탐貪·진瞋·치癡 三毒이 소멸되고 깨달음의 지혜를 밝혀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길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간절히 발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





## 잃어버린 신심을 찾아서

도원下/사집과



‘어떠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신심으로 마음의 땅을 굳히는 한 철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처음이었다. ‘구름문을 펼치며’에 기재된 것은, 이 한 줄을 쓰려고 아침에 운을 떼어 저녁에 적어내었을 때도 있었다. 막상 석 달 만에 재회한 나의 글귀는 승복 위에 떡볶이 코트를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내가 저런 글을 썼다니... 아마 수업시간에 ‘심지心地’에 대해 배웠던 것 같다. ‘아무개는 참 심지가 굳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왜 마음 심심자 옆에 땅 지地자를 붙이는 걸까? 당시 상황을 예를 들면, 경주 5.8 지진으로 비로전 앞 동서탑의 측도나 상단부 구조물이 안녕하지 못했다. 1,000년 이상 제 자리를 지켰던 탑이었다. 그만큼 외적인 풍파보다 그 바탕이 흔들렸을 때 여파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탑이 땅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람은 마음, 수행자는 신심을 바탕으로 한다. 믿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신심을 굳힐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 신심에 의지하여 지혜를 얻고 불도佛道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한다. 신라 원효 元曉 스님이 일컫는 신심信心이란, 직심直心과 심심深心, 대비심大悲心을 함께 갖춘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 의거하면 ‘직심’은 세상을 동체同體의식을 가지고 평등하게 보는 마음이고, ‘심심’은 지극히 선한 마음이며, ‘대비심’은 자비스러운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사람이 믿어야 할 대상은 근본과 불佛, 법法, 승僧이다. 첫째,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부여된 각각의 명칭으로서 존재하는 나를 포함한 주체나 객체가 아닌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심眞如心을 믿는다는 것이다. 둘째,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뤄낸 수행과 깨달음의 경지를 믿고 나 역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셋째, 법을 믿는다는 것은 4정제나 8정도 등을 수행하여 부처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면, 가깝게는 탐진치로 고통 받는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마침내 해탈할 것을 믿는 것이다. 넷째, 승가僧伽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들을 믿는다는 것이다. 한편 원효는 신심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신심을 장양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지관止觀 등의 5행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문禪門에서는 자기가 본래 부처요, 천진한 자기 본성, 열반의 묘한 체體를 만생萬生이다 구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살불살조殺佛殺祖. 이 말은 열반이나 부처가 고귀한 무엇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나타낸다. 특히 중국 문화에 융합된 조사선은 간경看經이나 6바라밀, 8정도 수행보다는 화두 참구를 통해서 단박에 본성자리를 꿰뚫을 것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의 선불교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송담 선사(1927~)의 말씀이다.

중생은 보고 듣는 경계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슬픈 일을 보면 슬퍼하고,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하고  
 온갖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계에 의거해서 자기 본성을 봐버리면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교문과 선문의 신심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은 아니며, 본래 부처라는 공통된 가르침과 각각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반야 사상이나 인연법을 믿는 신심 이외에 부처나 보살의 가피력에 의지하는 신앙도 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미타신앙·미륵신앙·관음신앙·지장신앙 등으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영험담들과 독특한 신행법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교학, 참선, 주력 등의 다양한 수행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별을 가라앉히고 생각과 언어 이전의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도록 한다.

정작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면, 그 실체가 공한 도리를 관찰하기보다는 얼른 불보살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게 치이는 강원 생활에 지쳐갈 때 ‘아~ 나는 왜 신심이 없는 걸까?’ 생각하곤 했다. 신심만 있다면 좀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때 수업 시간에 들은 심지에 대한 말씀은 큰 힘이 되었다. 신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과정 또한 신심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며 머릿속을 다소 정리할 수 있었다. 신심으로 다져질 각자의 마음의 땅에서 자라날 보리나무를 기대하며 3년 전, 수계식에서 100여명의 사미·사미니가 우렁차게 합송했던 우마리 율사의 계송으로 마치려한다.

신심信心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출가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永遠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구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고웅高雄하게 걸어서 가라. ☸

## 發願文 - 〈부제 : 두 손 모아 간절히 원하는 글〉

지운 / 사미니과

【歸命十方調御師 演揚清淨微妙法 三乘四果解脫僧 願賜慈悲哀攝受】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큰 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피 주옵소서.”

발원문 하면 흔히 이산연선사발원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 또한 많은 발원문 중 가장 마음 속 깊이 와 닿아 좋아하는 발원문입니다.

사전에서 “發願文”을 찾아보면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을 적은 글’ 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글로 적어 나타낸 것입니다.

문득 이 이산연선사발원문을 쓴 이산연선사가 궁금해 찾아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산연선사의 발원문은, 관세음보살님의 크나큰 자비로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서원을 담고 있는 발원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원문의 지은이가 이산해연선사로 통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이산교연, 혹은 이산연, 장생교연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는 치문경훈에도 이산연선사발원문으로 나옵니다.) 선사의 생몰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당나라 말기의 스님으로 육조혜능의 2대제자 중 한 사람인 청원행사의 문하인 설봉의존의 법제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이산연선사발원문을 먼저 접하고 한문을 접해서 그런지 우리말 이산연선사 발원문이 더 마음 속 깊이 와 닿습니다. 갓 출가를 하고 행자 때 간경하는 사형님 곁에 멀찍히 있으니 이 이산연선사발원문을 제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를 낭송하듯 발원문을 읊었습니다. 사형님은 숨죽여 웃으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우와 형님 이 발원문 정말 좋아요!” 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은데?”라 물으셨고 “‘모진 질병 돌 적에는 악플 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로운 일 한 가진들 빼오리까’ 이 부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자님도 그렇게 살도록 해~.” “네!” 하며 대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이 일렁이도록 번역을 했을까 했더니 바로 운허용하(耘虛龍夏 : 1892~1980) 스님이셨습니다. ‘운허 스님이셨구나...’ 하고 감탄하는 한편 ‘문학성이 뛰어나셨구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번

역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이해할 용어를 만들어 위로는 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건지는 지름길 마련에 인색하지 말자” 이 화두는 운허 스님의 평생화두라고 합니다. 이 화두로 인하여 우리말이산연선사발원문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운허 스님께서 최근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 12인 가운데 2016년 2월의 스승으로 뽑히셨습니다. 출가 전 이시열이란 이름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시열 선생을 알아보니 바로 운허 스님이셨던 것입니다.

행자수계교육 당시 나만의 발원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발원문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처음 행자 때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되짚어 보면 ‘가사 장삼을 수함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자운慈耘이라는 이름처럼 자비의 밭을 가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또다른 나만의 발원문을 손가락 두 마디만한 수첩에 적어 늘 적삼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며 잠이 날 때마다 참회와 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발원문 맨 마지막 구절엔 언젠가 저희 노스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일이 일어나니 지난 일은 참회하고 현재 일을 즐겁게 웃으며 좋게 보내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간절히 발원하는 바입니다.

저만의 발원문은 주위에서 제게 해준 힘이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좋은 발원문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잔소리도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얼마 전 학장스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 중 머리 속을 땀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처음과 끝이 아닌 게 없습니다. 순간순간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씀 또한 갈고 닦는 수행자에게 또 하나의 좋은 발원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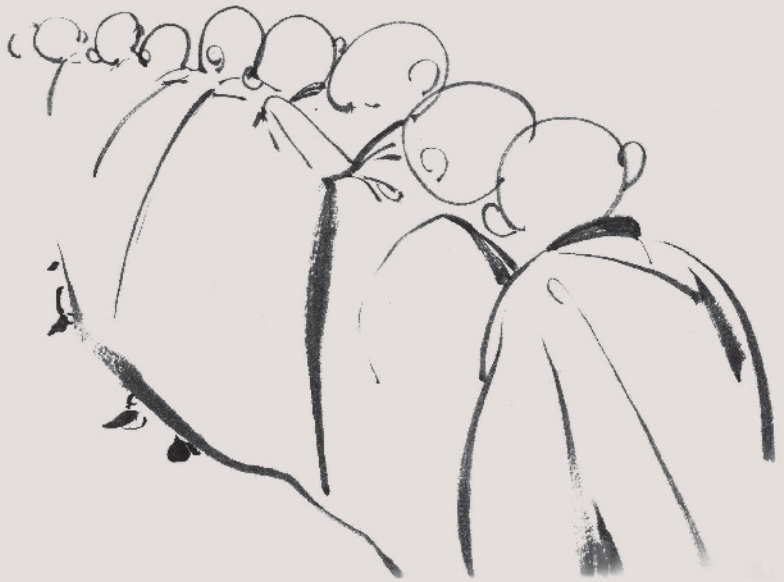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만의 발원문은 저에게 채찍질도 해주고 당근도 되어줍니다.

처음 발심했던 행자 때의 발원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의 발원문, 두 가지의 발원문을 항상 수지독송하며 기슭 깊이가 발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믿음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편집부



혜공 / 사교과



진리와 일체一體되지 않으면  
경전을 외운들 무엇하리.

세속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명상 행법을 행한들 무엇하리.

몸(身)과 말(口)과 뜻(意)이 진리의 표현이 아니면  
종교 의식을 행한들 무엇하리.

분노가 자비慈悲로 바뀌지 않으면  
인내忍耐를 명상한들 무엇하리.

온갖 편파偏頗, 좋아함과 싫어함을 버리지 않으면  
예배禮拜를 드린들 무엇하리.

육도六道 중생 부모처럼 섬기지 않으면  
수도원修道院을 지은들 무엇하리.

사랑과 존경심 마음 속에 없으면  
탑을 쌓은들 무엇하리.

스승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유물遺物과 조상彫像을 예배한들 무엇하리.

윤회세계 벗어나 열반세계 구하지 않으면  
출가 수행자出家修行者가 된들 무엇하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오, 불쌍한 중생!' 입으로 말한들 무엇하리.

샷된 갈망 녹아지지 않으면  
한두 번 남을 도운들 무엇하리.

스승의 말씀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제자가 많은들 무엇하리.

이롭지 않은 모든 행위들  
조용히 버릴지니라. 囑

- 밀라레빠 -



운문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은 날 밤 꿈에 법정 스님이 다녀가셨다. 원적에 드신 것이 옛그제 같은데 어느새 열반 7주기를 앞두고 있다. 열반에 드시기에 앞선 법석에서 스님은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고 하셨는데….

여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스님과 내 인연 고리를 티어 준 건 <무소유>다.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를 가져야지 둘을 가지면 하나였을 때 살들함을 잃는다는 말씀은 ‘벼락’ 같았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를 가지면 쓰지 않는 나머지는 쓸모를 잃고 만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인가. 쓸모를 잃은 사람이나 사물은 살맛을 잃는다. 벼락 맞은 뒤로 내게 쓸모, 쓰임새는 ‘살림’을 여는 화두였다.

사람들에게 살림이 뭐냐고 물으면 백에 아흔아홉은 뭐이리 싱거운 것을 묻느냐는 듯이 멀뚱한 얼굴로 집에서 어머니나 아내가 하는 집안 살림이라고 말씀한다. 집안 살림 더없이 옳은 말씀이지만 반만 맞는다. 살림은 죽임에 맞서는 말이다. 이 말을 새기면서 다시 곱씹어보면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뛰어넘는 살림은 없다.

경제를 일컫는 ‘economy’ 말뿌리는 라틴말에서 왔다. 풀어보면 살터 ‘eco=oikos’를 꾸리기 ‘nom=law’로, 우리말로 하면 집안 살림 또는 살림살이다. 좁게는 가정을, 넓게는 부락을 어떻게 꾸려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담긴 낱말이다. 환경이나 생태학을 가리키는 ‘ecology’도 다르지 않다. 살터 ‘eco=oikos’다. ‘ecology’에 맞서는 ‘ecocide’는 ‘살터를(eco=environment) 죽이다(cide=kill)’라는 바탕에서 ‘환경파괴, 생태계파괴’라는 뜻으로 쓴다. 주어진 자원(식량이나 땅, 입을 거리 따위)을 어떻게 아껴 식구를 살릴 것인가 하는 데서 온다. 벌이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데서 나온 것이 경제 개념이다. 얻은 것을 알뜰살뜰 아껴 써서 식구를 살리는 살림살이, economy와 ecology에는 ‘너를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오롯하다.

얻은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을거리다. 먹이란 무엇인가? 법정 스님이 풀어쓰신 공양계 첫 마디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를 읊으면서 상에 놓인 밥과 반찬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저 밥과 반찬은 저기 늪기에 앉서 한 목숨이었다.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다”는 말씀을 실감하며 내 몸을 바라본다. 저 몸이 마잖아 이 몸에 들어와 한 몸

## 무소유에 서린 뜻은

변택주 / 작가



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감싸는 까닭은 “이 몸으로 일구는 삶이 살림살이 말절미인 ‘너를 살릴 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다’는 깨우침을 이루는 삶을 지어갈 수 있으려나?” 싶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씀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다. 싯다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앞뒤 오른쪽 왼쪽으로 일곱 걸음씩 걸고 나서 외쳤다는 말씀. 어쨌든 않은 우리말 솜씨로 풀어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롯한 나’라는 말이다. 오롯하다는 말은 ‘남고 처짐이 없고 스란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로 옹근 씨앗을 가리킨다. 씨앗이란 조금이라도 떨어내면 구실을 잃고 마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열매다.


날 목숨붙이인 내가 더할 나위 없이 옹골다면 날 목숨붙이인 너 또한 그대로 옹골다. 옹근 씨앗으로 빛은 내가 옹근 씨앗으로 빛은 나와 어울리며 ‘우리’를 이룬다. 천상천하유아독존, 한 울타리를 빚어가는 ‘우리’가 두루 오롯하다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데나 우리를 붙여” 전철에서 젊은이들끼리 나누는 말이 꺾전을 때렸다. “남편을 왜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My wife’라는 서양 말투를 따르지 않고, 우리 말버릇대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다. 저 젊은이 말마따나 우리말에서는 외동이라도 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서슴없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어째서 그럴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에 담긴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뜻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를 이루는 깊은 사이’라는데 있다.

오늘 아침, “1~7차 전국 750만 촛불 기록...” 평화 시위 대하드라마 쓰다”는 헤드라인 뉴스가 눈길을 붙든다. 외신이 놀랄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 평화집회. 어지러운 세상 결을 바꾸겠다고 촛불을 들고 나선 여느 사람들이 터무니(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저자들이 주말, 쉬 거를을 내놓고 추운 겨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라고 역장을 지르면서 너를 남으로 돌려 세워 ‘우리’를 내팽개치고 ‘나만’ 내세운 탓이다.

11월 26일 진주시국대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젊은이는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지금, 궁극하다. 제겐 거부장적인 아버지가 있다. 절대 명령권자 어머니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반 학생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친한 친구 의견만 듣는 반장과 반장 뒤에서 제 입맛대로 학급 일을 결정하는 반장 친구들이 있었다. 개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두발로, 교복으로, 시간표로 학생을 통제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직장에서는 노동자와 노동법보다는 돈과 상품을 앞세우는 시장이 있었다.”면서 “내 안에 있는 박근혜를 발견하고 내 옆에 있는 최순실에 분노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돈이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오롯이 독립된 개체로 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외쳤다. 촛불을 밝혀 이룬 저 물결은 내 쓰임새, 쓸모를 짓밟고 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데 부아가 치밀어 나온 사람들이 더불어 이룬 우리 열결(정체성)이다. 다시 비롯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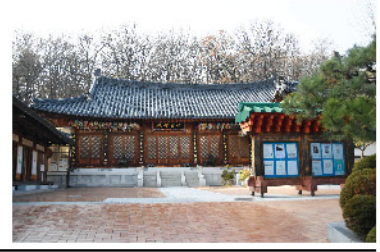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까닭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뜻이라.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 내려칠 수도 있기에 경계를 늦추지 못한다. 그러나 절집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손을 모으고 절을 한다. 손을 모으면 때리는 손이 없어진다. 평화로운, 때리는 손을 내려놓고 남을 너로 돌려 세워 네 쓸모와 내 쓸모를 살려 ‘우리’를 빛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남을 너로 돌려 세워 우리 빛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북돋우고 부추기며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화염누리. 서로 쓸모를 찾아주고 쓰임새를 살려가는 누리 결이 바로 불국토이다.

“알고 보니 네가 나로구나” 



변택주 님은 '살림미디어 이닥터스' 글예김꾼이다. 아울러 '으라차차영세중립코리아' 와 '교파평화도서관을 여는 사람들' 바라지이며, '붓다로살자' 발행인이다. 퍼낸 책으로는 <범정스님 승결>, <범정, 나를 물들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 <달 같은 해> 그리고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가 있다.





# 개회사 주지 송강 스님을 찾아서

무이 / 사교과

불교방송에서 '송강스님의 기초 교리강좌'를 진행했고 불교신문에 '송강 스님의 백문 백답'과 '송강 스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연재했다. 저서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시리즈', '송강 스님의 백문 백답', '송강 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 '산심명', '초발심자경문'이 있다. 2004년에 서울 강서구 개화산에 개화사에 창건해 교육, 포교, 불사에 매진하고 계신다.

도로변에 단청을 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일주문을 들어서니 정면에 무량수전이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놓여져 있는 여러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아늑하기만 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경내였다. 스님을 뵈러 들어간 다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침향과 차가 스님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스님께서 차 달이시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스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반인지 무슨 경을 지금 보고 있는지 물으셨다. 사교반에서 능엄경을 보고 있다고 하자 능엄경을 비롯한 사교반에서 배우는 원각경,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내셨다. 각 경전에 대한 해박한 말씀에 그 동안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다.





## 5년간 팔만대장경을 일람

스님께서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연히 경·울·론의 대가들을 스승으로 만나 공부를 했다. 고등학교 때는 불교학생회의 교법사 스님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부산 대각사 옆에 있던 불서보급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대신 가게를 봐주고 거기에 있는 책을 닦치는 대로 다 보셨다고 한다. 중간에 큰스님들을 만나 아만심이 깨어지고 참선공부로도 전환했었다. 그리고 범어사 강원에서 대교반이었을 때 10·27 법란이 일어났다. “그 당시 만일 군인들이 내 목에 총을 들이대고 내가 총을 내려놓을 한 마디를 해 주면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쏠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는 것에 꼭 막혀버렸어요. 내 판에는 목숨 걸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설피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부처님이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에 의심이 가서 중앙승가대학에 가서 팔만대장경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승가대학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방학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겨울에 중앙난방이라 난방을 해줄 수 없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서울의 겨울 날씨는 영하 15도가 예사여서 ‘어떤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각서를 썼어요. 4년째 겨울 정월에 새벽 두 시경 법화경을 보다가 서쪽 창이 환해서 창문을 열고 보름달을 하염없이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무심코 달을 보다가 법화경을 보는데 한 순간 그곳에서 금빛이 확 올라왔어요. 그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경·울·론 어떤 것도 더 이상 의심이 없어진 단계가 되었어요.”

스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百尺竿頭進一步，大死一番’이다. ‘백척이라는 장대 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크게 한 번 죽어라’라는 뜻으로 중학교 때부터 은사스님께 들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몸에 와 닿은 것은 중앙승가대학에서 경을 보던 그 당시였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목숨을 잃어도 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경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보는데 경을 보는 것은 분명한데 나를 보는 것은 불분명했어요. 그 때 그게 없어지고 밖의 것과 나에 대한 의심도 비로소 사라졌어요. 그 뒤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후에 총무원에 들어가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맡겨도 난 다 해냈어요. 그 당시 별명이 ‘철의 사나이’였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 걸리면 어떤 것도 못해요.” 팔만대장경을 읽고 받은 그 감동이 스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녹아 나의 마음도 환희로움으로 가득 차다. 생사를 걸고 팔만대장경을 읽어낸 그 열정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생애

그러면 지금 강원에 있는 학인들은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봤다.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생애예요. 우리가 목표로 한 어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부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핵심적인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면 돼요. 누가 부처님 말씀을 물으면 그것에 대해 막힘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파고들어가서 해야 해요.” 지도자의 길을 겸해서 가는 우리들은 부처님의 정법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에 나오는 아난이 되고 수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찰자가 아닌 그 당사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직접 들으면서 부처님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내가 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경이 나한테 오고 그 다음에 경을 놔버려야 해요. 경을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강원 교재가 초학자들이 보기에 어렵지만 안내도와 같은 경을 미리 봐 두어야 내가 어떤 경계에 갔을 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경을 혼자 보기 어려우면 상급 학교에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보기를 권했다.

## 자기가 잘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병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하자 그것은 좋은 얘기 다라고 하셨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나 의심의 대상은 그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들이 불안에 빠져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을 의심하지 나는 잘 살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병이라고 걱정하신다.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제대로 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밥값 했나? 부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오늘 내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부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새겼다.

스님께서는 개화사를 창건한 이후 기초교리부터 선어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하고 차, 향, 음악, 정좌, 정념 등을 활용한 법회로 마음 치유와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주지를 맡은 이후 십 몇 년간 계속 안거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스님께 포교에 관해 학인들에게 한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 포교의 기본은 자기 것 먼저 갖추는 것

“포교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얘기해 봐야 아무런 감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은 천재적인 분이셨으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곧 깨달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 출가했으니까 빨리 좀 배워서 포교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먼저 자기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야 돼요.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밖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 분별하는 것도 도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염불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상담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배려로 상대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말할 때 모든 기준을 부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은 이력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상대를 감동시키지 않는 포교는 안 됩니다. 정법으로 인도해야 사람들이 머물러요.” 포교의 기본은 자기 것을 먼저 갖추는 것이며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신다.

## 사람들을 해탈시켜 주는 것이 최대 복지다

복지에 대해서도 스님은 한 말씀 해주셨다.

“스님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기준을 부처님께 맞추어야 해요. 부처님이 복지관을 세운 일이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세상의 길과 또 다른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복지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해탈시켜 주는 것이 부처님이 하신 복지며 그것만한 복지는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복지를 내팽개치고 물질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 개입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부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스님께서서는 승가에서 해야 하는 복지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해주셨다.



차와 음악과 향과 도도하게 흐르는 스님의 말씀 속에서 3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경전에 관한 것과 학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들어서일까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스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저술하신 책들을 보며 선지식을 만나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한번 더 감사드렸다. 항상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기본을 잘 갖추려는 말씀을 되새기며 다실 문을 나서니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

## 회향, 진심으로 돌이키기

덕인 / 대교과

서투르기만 하던 치문을 지나 어느덧 화염의 끝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중한 강원 생활의 마지막 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저는 문득 이 길의 시작점에 들어선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길의 끝에 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원 4년간 보고 들은 큰 가르침들을 되새겨 보면서 회향이라는 큰 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광대한 원을 세우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대승의 관점으로 볼 때 최고의 회향 방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회향의 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보다 가까이 회향의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한자를 풀이해 보면 ‘돌아갈 회, 향할 향’자로 회향은 자기가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이나 또는 자신의 불과에 돌려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만의 독점이 아닌 함께하는 일인 대승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이 한 단어로 부처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뜻은 어떤 기도나 공부를 해도 마지막 종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에 저는 ‘순환’이라고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회향과 순환으로 단어만 따로 갈라섰을 뿐이지 온통 부처님 법이고 결국에는 모두 하나의 뜻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법문의 주제를 ‘회향’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법선언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나아가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는 말아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라. 이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훌륭한 법문을 듣게 되면 곧 깨달아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리라.” 2600년 전 전법의 시작이었을 회향이라는 길은 처음에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곧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나비효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우리들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수승한 일인가요. 내 옆의 도반이 원수요 상반은 알밋고 하반은 머터로워서 안쓰럽다고 잠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가 수행자로서 마음공부를 트게 한 인연입니다. 매일 보는 경전





의 가르침들 속에서 이처럼 귀한 인연을 만난 자신만의 회향 방법을 찾아 펼쳐보는 것도 우리들의 큰 공부 중 하나입니다.

화엄경에 이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비유들로 높은 보살의 회향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가운데 제 31위에서부터 제 40위까지의 열 가지의 회향 공덕을 가리켜 십회향이라고 하는데 십회향품을 들여다보면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다시 생각하되, 해가 일체를 비추어도 은혜 갚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중생들이 악함이 있더라도 다 능히 용납해 받으며, 다만 선근을 닦아 회향하여 넓게 중생을 안락하게 하며, 만일 선근이 있더라도 일체 중생에게 이악하지 않으면 회향이 아니거니와, 적은 선근이라도 중생을 위하여 반연하면 회향이라고 이름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보살이 널리 중생에게 돌리는 것으로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의 이념도 함께 합니다. 최고의 회향은 선근 회향이고 이는 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깨어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욕락의 고통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 속에서 어렵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결국엔 회향에 부합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투름이 허물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 되는 초발심의 확인. 이 귀한 때를 운문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디서 밋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세운 여러분의 원력과 회향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운문사에서 웃고 울었던 나날들은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선근회향하기 위함입니다. 실령 조금 서러운 일이 있더라도 인연 따라 돌아가는 질서정연한 불교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선근회향을 위한 원력의 재정비로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량을 감싼 호거산과 대웅보전의 향내음까지 이 모든 만물이 아직 제가 운문사에 있음을 말해 줌과 동시에 수고했다라고 다독이는 것 같아 정말 졸업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화엄행자 26명이 이렇게 선근 회향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회주스님, 선재동자가 곧 나 자신임을 실감하도록 재미있게 연결시키며 화엄경을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확장스님,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스님들, 지난 상반 스님들과 여법하게 발우를 피며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하반 스님들, 4년 동안 즐겁게 공부하며 지내온 도반스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위적정 대중 스님들 감사합니다. ☸









함께 가는  
겨울 冬行





# 설정 스님의 인생법문 어떻게 살 것인가

덕념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설정 스님의 인생법문  
어떻게 살 것인가

맷싸한 찬 기운으로 정신차리게 하는 동장군이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쉬이 느끼게 됩니다. 산에 사는 즐거움입니다. 변하고 통하는 자연의 섭리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곤이 크고 넓은 것이 천지가 되고, 변하고 통하는 것이 4계절이라고(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 『역』에서는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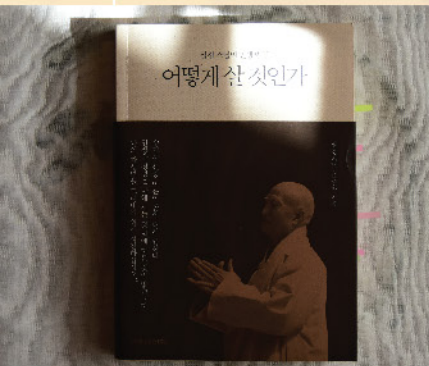
주말이면 섬에 있던 선방을 찾아 화두 수행을 하던 차에 출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고 이제 정말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출가했습니다. 늦은 출가는 낯선 환경에 적응을 더디게 했습니다. 해야 할 소소한 일들이 준비한데 따라주지 않는 몸이 불편하다고만 여기니 자연 몸은 더한 통증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참 하루살이 삶처럼 분주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후원과 법당을 오가며 몸을 움직이며 산다는 것이 이런 명쾌함이 있구나 했습니다.

왜 출가했었는지, 출가 수행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져지지 않아서 스스로도 놀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나아가리라 다짐한 바였지만 나날이 첫 발심의 원을 놓치곤 했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나의 출발점이 흐릿해 보일쯤, 참 반가운 어른의 말씀에 만났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도반 스님이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이신 설정 스님의 인생법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보내 온 것입니다.

방장스님은 “출가란 세속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떠나 세속의 즐거움, 즉 오욕(재물욕, 명예욕, 식욕, 이성욕, 수면욕)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일가친척을 떠나 마음속에 오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삶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상대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출가의 삶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하지요. 해탈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열반과 같은 뜻이지요. 그런데 결국 해탈의 길은 승과 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구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라고 더욱 힘주어 얘기하십니다.





행자시절, 큰절 예비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교수사 스님은 저희들에게 몇 가지 공안을 제시하시며 답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반 하면 무임금의 노동자지 수행자가 아닙니다. 행자님들은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생활하세요.” 하시며 고삐를 다잡게 하셨습니다. 방장스님께서도 정진할 것을 독려하십니다.

“정진해서 한 번 고비를 넘겨놓으면 ‘아, 이것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않은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조사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것을 해서 될 것인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정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 뒤로 물러나 버려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그 길을 찾아 출가하였으니 정진하여 부처님의 혜명 있는 일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집을 나와서 출가가 아니라 출가의 원을 매일매일 새길 수 있는 깨어 있음에 이 사문의 길을 가는 듯합니다.

不他非 不世事 不人惑 不放逸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서울로 가는 상좌에게 방장스님께서 써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남에게 시비를 하지도 말고 시비를 받지도 말아라.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은 네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세상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세상일에 관여하면 세속인이자 출가자가 아니다. 셋째,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아라. 여자든 남자든 남의 유혹에 넘어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네가 남을 유혹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 매순간 철저하게 살아라.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글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심불반조心不返照면 간경무익看經無益이라고 했다. 마음으로 반조하면서 공부해야 이익이 있다.”

“제멋대로 살면 안 돼. 스님들이 가장 잘못된 게 제멋대로 사는 것이다. 마음속에 규칙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아라.”

강원 졸업 후 철을 나고, 절에서 소임을 살았습니다. 경전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대중 속에 있으면 대중이 채찍이 되지만 위의 당부의 말씀은 저에게도 좋은 경책이 됩니다.

“왜 살아야 하지?”

“질문 이상하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죠?”

가난이 낭만이었던 대학시절, 단칸방에서 함께 자취하던 선배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행동이 먼저였던 나이 어린 선배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교정에 나타나곤 하더니 혼자서 단식농성을 14일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출가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막상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식발한 저를 보고 참 좋아 보인다 하더군요. 서로 모습은 달라졌지만 부처님 법으로 수행하고 그 법을 실천하는 삶은 함께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장스님께서 “내가 편하고 받는 것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나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 하나하나가 우주와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하십니다. 생활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과법만 놓치지 않아도 참 진실되게 살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것만으로도 명확한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무상하기에 수행한다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기에 변화는 수행과 많이 닮아 있다.

마음에 고인 물을 퍼내듯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태도로 치우친 마음을 바로 세우고 넓은 것을 거두어 본다면 이것은 수행과 닮은 변화가 곧 행복이라는 지향점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구하는 길에 참회가 곧 수행이고 행복으로 가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



---



---



---



---



---

천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이목소 물은 늘 그 순간만을 이곳에 머물고 갔다. 우리가 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는 성질의 물이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한다. 계속 변하고 있다. 낯설음의 완전체 같았던 강원의 생활도 해를 거듭하며 사교가 된 지금 이 도량의 생활은 이제 익숙함이다. 처음 접한 한문불전은 담장을 대면하는 듯한 막막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과는 달리 친숙해진 것을 느낀다. 이제 곧 4년의 운문사 수학을 마치게 되는 화엄반스님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었다고 생각할까?

누군가의 시작이기 전에 익숙한 생활의 터전 이었고, 수행의 과정 중에 잠시 머무르는 곳이기도 할 것이다. 어느 자리에도 현재라는 점을 찍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순환되는 삶에서 분명 어제와 다른 오늘의 변화를 관찰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한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 법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변화를 찾고, 불자들은 가족의 화목을 빌며 어떻게 지혜로울 것인가를 찾을 것이다. 청소년은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꿈을 찾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도 해 보겠다는 마음을 구할지도 모른다. 각기 처를 따라 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나아가



는 방향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나의 습으로 이루어진 하루 생활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원하는 바를 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떠한 행을 통해서 점차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기에 변화는 수행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어도 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쉽게 볼 수 없듯이 내적인 관찰을 통한 변화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변화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주야육시晝夜六時로 나의 익숙한 습관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습적인 나의 태도를 관찰하고 세상으로 투영된 나의 안경을 벗어 나를 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밖으로 향한 빛을 나에게 돌이키는 것이다. 생로병사를 보고 무상함을 알게 된 싯다르타는 출가를 시작으로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상함 속에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당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예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준다. 그것은 의식과 의례를 통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참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무수한 업을 지었고 관계 속에서 몸과 말과 뜻으로 늘 업을 짓고 있다. 참회를 통해서 마음에 고인 물을 퍼내듯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태도로 낡은 것을 거두어 치우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수행과 닮은 변화가 곧 행복이라는 지향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상을 관찰하고 변화를 구하는 길에 참회가 행복으로 가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우리 삶은 대중생활이고 또 그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삶일 것이다.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경계 또한 무상하기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천년을 흐르고 있는 이목소 물이 앞뒤를 다투지 않고 순리를 따르듯이 말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법다운 수행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착한 벗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 세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변화를 관찰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물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지. 깊어가는 겨울에 온몸을 드러낸 나무는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이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무리와 시작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처한 환경을 돌아보며 너도 나도 무상하기에 수행하는 즐거움의 날들이 되기를 바란다. ☸





▲ 강백 무비 스님 특강



▲ 동련 어린이 지도자 연수



▲ 동안거 결계포살법회



▲ 오백전백일기도 회향

2016년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  
 일시: 2016년 12월 17일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유문사 ▶ 주최/주관: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

## 운문소식

- 11월 14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개학공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계제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21일 오전 수업 후 배추뽑기 대중올력이 있었고, 오후에 BBS불교 TV 저녁예불 촬영이 있었습니다.
- 11월 23일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6~27일 김강 대중올력이 있었습니다. 배추뽑기부터 마무리까지 대중 스님과 함께 자원봉사자 50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음10월29일) 조왕불공이 있었습니다.
-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주관한 교수연찬회에 학장스님을 비롯한 전 교수스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12월 3일 진관사에서 지낸 실상화 보살담 49제에 회주스님 이하 어른스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12월 3~4일 하동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6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지원자 40여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2월 8일 졸업을 앞둔 화엄반스님들이 운문유치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 12월 9일 동안거 결계포살에 포살법사 일진 학장스님의 주관으로 대웅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포살 후에는 대학원스님과 화엄반스님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 12월 11일 오백나한 백일기도 회향이 있었고, 회주스님의 회향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법회에 모인 대중에게 심시일 반으로 서문시장 화재에 모금할 것을 권선하셨습니다.
- 12월 14일 화엄반스님 건강검진이 오전 10시부터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오후 1시 선열당에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12월 16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19~22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27일 겨울철 중간 죽비교체가 있었고, 박문호 교수님의 <뇌 과학과 수행>을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8~30일 비로전에서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참 기도가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전 학인을 대상으로 회주스님께서 <발심수행장>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 1월 5일 성도재일 철야정진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0일 대웅보전에서 제5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제53회 운문승가 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 1월 16~17일 신입생 예비소집과 간단한 서류심사와 면접이 있습니다.
- 1월 19일 ~3월 3일 44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 2월 13일 3박 4일간 사집을 수료한 스님들의 대만 4대불교성지순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송복례 • 이기태 • 심우정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 - 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장식한 관을 쓴 보타 / 중국, 신시성, 다통, 5세기 후반〉

## 온 우주에

온 우주에 두루해 있는 이것이어  
 인연 따라 굽어졌다 펴졌다 하네  
 호흡 따라 들어오고 나가지만 흔적 없어  
 성인 따라 성인 되고 속인 따라 속인 되네.

體徧河沙淨妙身 應緣能屈又能伸  
 面門出入無蹤跡 隨聖隨凡作主人

나옹혜근 懶翁惠勤(1320~1376)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2017년 불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사미니과 〇〇명
-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장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2017년 1월 1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운문사 홈페이지 참고 및 중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 주지 진광

- 모집대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7년도 불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〇〇명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 모집기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 원감 진광

※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중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겨울호 · 통권 제139호 · 2017년 1월 9일 발행 · 등록 1986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범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지욱 / 편집위원 · 혜공, 동호, 도명, 성경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지욱(겨울 숲) / 삽화 · 혜공, 도행 / 편집 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